

출판정보고속도로의 꿈을 키운다

(주)한국출판정보통신 창립한 강경중 대표

꿈의 정보통신고속도로가 우리 출판계에도 현실화될 것인가. 지난 8월20일 창립총회를 거쳐 정식 발족한 (주)한국출판정보통신은 출판계가 또하나의 큰 꿈을 담아 띄워 올린 거대한 풍선이다. 출판사, 서점, 출판유통 등 약 150여개사의 공동출자로 자본금 13억원을 모아 출발한 (주)한국출판정보통신의 강경중(45·뿌리와날개 대표이사)대표는 그 꿈의 현실화는 출판계 스스로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책방은 이제 정보의 복덕방

“우선 출판관련정보가 왜 전산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인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모든 산업의 핵심은 정보통신입니다. 유난히 보수적인 출판계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요.”

전산화 인식의 부재는 구체적으로 출판계 코드의 '표준화' 문제와 맞닿아 있다. ISBN을 부착하는 한편 대형서점에서는 각자 POS를 개발, 전표작업을 따로 하는 이중적 낭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같은 '절름발이' 전산화로는 완벽한 업무효율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전체 표준화에 걸림돌이 되리라는 인식이 강경중 대표로 하여금 출판VAN사업을 추진하게 했다.

“출판정보통신에 관한 한 아직 미답지인 한국은 그 첫 단추부터 잘 끼우기 위해 더욱 업계가 한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정보의 인프라 구축은 세가지 방향에

서 이뤄진다. 첫째는 출판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완벽한 구축. 출판 DB인프라가 이뤄지면 동네의 작은 책방은 더이상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다. 국내 신간의 상세한 정보는 물론 출판계 소식과 통계 등의 각종 자료를 볼 수 있는 정보의 복덕방이 된다.

둘째는 전자거래문서교환(EDI). 이제까지 일일이 손으로 전표를 써서 팩스로 수·발주하던 일이 전자사서함으로 거래, 오류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셋째는 POS (판매시점관리시스템)사업. 책이 어느 지역 어느 서점에서 얼마나 팔렸는지, 재고는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한 정보를 눈감잡할 사이 알 수 있다. 더불어 출판사의 합리적인 기획도 가능해짐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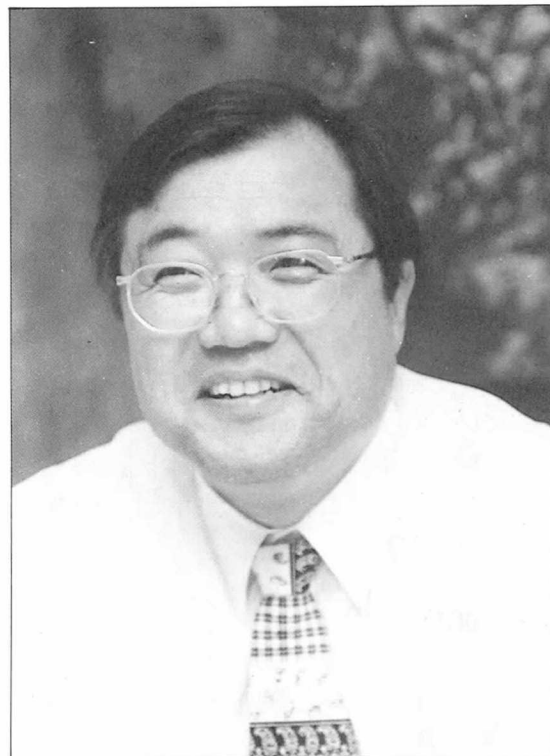
장미빛 청사진 뒤에는 슬한 어려움도

이렇듯 청사진은 장미빛이지만 어려움도 많다.

ISBN 100% 부착과 활용, 일원화된 출판계의 코드 표준화 문제는 시급한 과제다. 또 어떤 시스템으로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도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강경중 대표는 '완벽한 자동화'가 과연 우리에게 필수적이냐는 물음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네덜란드나 일본 같은 경우 최신 시스템의 자동화를 갖췄지만, 미국은 반자동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것.

“전산화하면 하루아침에 도깨비방망이처럼

“전산화하면 하루아침에 도깨비방망이처럼 모든 것이 똑딱 처리되리라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자금력과 시간,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출판계도 그런 아픔을 함께 겪어나가야겠지요.”



강경중 대표.

처럼 똑딱 모든 것이 자동 처리될 거라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자금력과 시간투자,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는 전산화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출판계도 그런 아픔을 함께 거쳐야 하겠지요.”

강경중 대표는 출판문화협회의 상무이사를 겸하면서 오전에는 파주(뿌리와 날개 유통)와 포이동(《비엔비출판서비스》)에, 오후에는 서교동(한국출판정보통신) 사무실로 뛰느라 하루가 24시간인지조차 잊고 산다. 출판의 마지막 구상으로 달려든 출판

VAN 사업은 강경중 대표의 뜨거운 의욕과 함께 출판계의 기대를 불러모으고 있다.

— 김지원 기자

지성의 샘은 이런 책을 만듭니다

세계의 철학

- 1 이탈리아 철학 이성애 외 편저
- 2 스칸디나비아 철학 J. 슐뢰르 지음
임규경 외 옮김
- 3 라틴아메리카 철학 H. E. 데이비스 지음
우정규 외 옮김
- 4 아프리카 철학 97년 출간(2차분)
- 5 러시아 철학 97년 출간(2차분)
- 6 동구권 철학 97년 출간(2차분)
- 7 중동 철학 97년 출간(2차분)

그리스 과학사상사

G. E. R. 로이드 지음/이광래 옮김

철학적 사고와 과학이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으며 그리스 철학이 사고의 추상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재적·실용적·실증적 과학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스 과학사상을 사회·경제사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신국판 248쪽, 7,000원)

독도와 대마도

한일관계사연구회 지음

독도와 대마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의 영토인식 문제에 대해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 재검토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최초의 독도·대마도에 관한 저서. 연표 및 독도와 대마도의 고지도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신국판 296쪽, 10,000원)

드라마 작품을 통해 본 예술과 현실인식

하인츠 가이거 외 지음/임호일 옮김
언어를 존재론적 산물이 아닌 사회·역사적 산물로 봄으로써 희곡의 본질 규명에 획기적인 시각을 제시한 이 책은 부록으로 원문이 발췌되어 있어 희곡사의 발전을 넓게 조명해 볼 수 있다. (신국판 224쪽, 8,000원)

니체와 니힐리즘

하이데거 지음/박천국 옮김

하이데거는 니체를 근대 형이상학의 정점으로 보며 이에 니체에 있어서 니힐리즘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부에서 그는 니힐리즘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그것의 극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신국판 392쪽, 13,000원)

도서출판 **지성의샘** 133-120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77-7 서울제일인쇄조합 301호
전화/(02)4989-011~6 팩스밀리/(02)4989-017 HITEL ID Dymh4989 천리안 ID DM96002